

<b>보도 자료</b>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b>전순옥</b>		T.02)788-2758(내선 2758) F.02)788-0343 blog.naver.com/sparksoon twitter.com/chunsoonok 의원회관 633호	
<b>배포일</b>	'12. 10. 24. (수)	<b>담당자</b>	황금이 보좌관	<b>H.P.</b>	010-9168-7082

## 특혜, 총체적 부실 i-Fashion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 전순옥 의원 “i-Fashion 사업, 특혜와 총체적 부실로 얼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진행 전면 재검토 해야”

지식경제부에서 32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i-Fashion 사업에 대해 총체적 관리 부실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진행하고 있는 i-Fashion 사업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지경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얼룩져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한 과제 총괄책임자인 박교수는 올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라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순옥의원은 “R&D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결과물인 특허권을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 기업에 빼돌려 사업에 이용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사가 반

성하고 자속하기는커녕, 여전히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 밝혔다.

전순욱의원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징계중이던 박교수가 지난 달, 지식경제부로부터 I-fashion 사업과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또한, 전순욱의원은 박교수가 수행한 문제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최초 심사결과 보다 최종 결과가 낮은 수위로 결정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초 심의 과정에서는 형사조치권고와 국고 환수까지 결정되었으나, 최종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전순욱의원은 “최종 심의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전순욱의원은 “1차 사업의 주 목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사업 완료 전 3차년도 이후에는 전면 휴면상태에 있었으나,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는 매달 500만원씩 지출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라며, 관리 책임의 최종책임자인 지경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교수가 주도한 1차 사업은 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순욱의원은 사업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병원의 비만도 측정에 유용된 점도 지적하였다.

사업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인 ‘IT와 패션융합을 위한 3D 스캐너’ 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비만도 측정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단계 사업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친절(?)까지 배똥다. 이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물론 박교수이고, 박교수는 윤상직 지경부 1차관이 참석한 지경부 행사를 주관하기까지 한다.

또한, 박교수는 징계중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의 신규 사업 선정 당시, 아무런 자격도 없이 참석하여 직접 사업설명을 하기도 했다. 지경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 평가위원회 평가서에서 평가의견에는 이렇게 지적되어 있다.

## **박교수의 역할은? 참여기관도 아님.**

평가위원들도 박교수의 참여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순옥의원은 이어 “관리부실의 문제도 심각하다” 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은 “올해 박교수가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에 집행한 20억 기술료 사업의 집행과정은 R&D 자금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라며, 지경부의 관리 부실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의원실이 요구한 20억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에 4번에 걸쳐 서로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 같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보내온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다.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어떻게 서로 다른 내용의 답변이 돌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 지경부와 R&D관리기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은 “평과관리에서부터 과제선정, 관리 등이 모두 의혹투성이다” 며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전순옥의원은 “i-Fashion 사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임을 지적하고,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재점검한 후,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